

지구공동체 윤리로서 환경정의와 환경교육

Educating Environmental Justice as Ethics of Global Community

최병두*

이 글은 지구공동체의 새로운 윤리로서 환경정의에 관한 실천적 이론적 관심을 고양하고 이를 환경교육의 핵심에 놓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은 환경불평등을 초래했으며, 특히 최근 시장메커니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은 이를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환경불평등을 심화하는 시장의 논리에서 환경정의의 윤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환경정의의 윤리는 이러한 환경불평등으로 고통받는 다양한 계층 및 인종들에 의한 실천운동에서 제기되었다. 환경정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환경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와 더불어 철학적·사회이론적 전통들 — 자유주의, 공리주의, 마르크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 — 에 기초해 환경정의를 개념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환경정의에 대한 실천적 이론적 관심 증대는 환경정의를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에 대한 강조로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정의교육은 전통적 환경교육과는 달리 도시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계층, 인종, 지역 간 환경불평등의 문제들을 부각시키고 여기에 윤리적·실천적으로 접근해 환경정의에 기초한 생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어: 환경정의, 세계화, 시장의 논리, 환경불평등, 환경정의교육

1. 머리말

이미 10년 전의 일이지만 1997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 제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환경지도자 서울원탁회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세계 각국의 대표들은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과 4가지 원칙—즉 물질만능주의 극복과 정신문화의 창달, 환경정의의 추구, 과학기술의 환경친화성 증진, 책임분담과 협력 극대화 등—을 천명하고 있다. 전문의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4가지 원칙 가운데 특히 새로 강조된 내용은 ‘환경정의의 추구’이다. 이 원칙이 서술된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지구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삶의 터전이다. 따라서 지구환경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혜택과 그에 따르는 책임은 지구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는 개발로 얻어지는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국가와 민족, 그리고 세대 간에 최대한 공평하게 분배하고 그에 따르는 부담이 편중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환경윤리의 모색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온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번영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오염의 영향은 누적적이고 장기적임에 비추어 철저한 사전예방조치로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환경부, 1997)

이러한 환경정의의 원칙과 윤리는 세계화 시대 지구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정하고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을 역으로 해석하면 현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삶의 터전인 지구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지구환경의 이용을 통해 얻는 혜택과 그에 따르는 책임이 지구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제사회는 개발로 얻는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국가와 민족, 지역이나 집단 또는 세대 간에 불공평하게 분배하고 이

에 따르는 부담도 편중되게 부가해, 즉 환경불평등 또는 환경부정의가 만연해 있음을 느끼도록 한다. 특히 최근 세계화·지방화 과정에서 강조되는 시장 개방과 상품 및 자본의 자유 이동은 지역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환경부정의를 더욱 심화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또는 이로 인해) 환경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운동과 정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환경정의에 관한 연구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정의를 위한 시민환경단체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환경정의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¹⁾ 환경정의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결국 세계적 규모로 점점 더 심화되는 환경부정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구공동체 윤리로서 환경정의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구적 환경윤리는 관심을 가진 일부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시민이 인식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윤리라는 점에서 환경정의교육을 주창할 수 있다. 즉, 자연생태계에 대한 보편적 관심과 개별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기술적 통제에 우선 관심을 두는 전통적 환경교육에서 나아가 계층·인종·지역 간 환경불평등을 극복하고 인간 간, 인간과 생태구성원 간 환경정의(또는 생태정의)가 실현되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지구공동체의 윤리로서 환경정의에 관한 실천적 이론적 관심을 고양하고 이를 환경교육의 핵심에 놓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세계화 시대의 윤리로서 환경정의의 필요성을 밝히고 현 단계 환경부정의의 만연과 이를 추동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메커니즘의 작동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환경정의의 실천 운동의 대두와 활동과정 그리고 환경정의에 관한 이론적 연구 동향을 논의하고, 끝으로 지구공동체의 윤리로서 환경정의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과

1) 지리(교육)학에서 환경정의에 관한 연구는 강영복 교수의 지도하에 중고등학생, 노인, 주부 등 다양한 집단의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로 이루어지고 있다. 강영복·송영미(2003), 강영복·유은습(2004), 강영복·이수옥(2006) 등 참조.

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세계화 시대의 환경(부)정의

1) 세계화 과정과 환경(부)정의

현대사회는 심각한 환경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에 대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위기상황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열대우림의 파괴, 사막화의 촉진, 생물종 다양성 감소 등이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지구환경이 어떠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최병두, 1995).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유발하는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 사용은 여전히 증대하고 있으며, 삼림 파괴와 사막화를 촉진하는 대규모 남벌과 무분별한 개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되는 것은 이를 유발하는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대사회의 발달, 특히 자본주의적 산업 발전과 도시화의 진전은 화석연료의 사용 증대나 대규모 남벌과 무분별한 개발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적 규모의 환경위기는 점점 더 심화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단지 자연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유용한 자원의 배분이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의 배분에서도 국가 간, 지역 간, 계층 간의 불평등 문제를 포함한다. 선진국의 1인당 각종 자원 이용량은 제3세계 국민들의 이용량에 비해 몇 배나 많으며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자원 이용량은 큰 차이를 보인다. 환경문제로 유발되는 사회적 피해의 경우에도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본과 고도의 환경기술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반면, 제3세계 국가들은 자본 부족과 낮은 환경기술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미

흡하다. 한 국가 내에서도 부유한 집단은 환경문제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정치적 능력이 높은 반면, 빈곤한 집단은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지불이나 방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자원 이용 및 환경 피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국가(또는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불평등의 심화는 세계화·지방화 과정을 배경으로 한다. 포괄적 의미에서 세계화란 세계 각 부분(지역) 간의 상호관계가 더욱 치밀해지는 과정이며, 이로 인해 각 부분의 변화와 더불어 세계 전체가 사회공간적으로 급속하게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경제정치체제인 자본주의의 최근 경향, 즉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발전과정과 관련이 있다. 1970년대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침체 상황에 봉착함에 따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의 긴축재정과 탈규제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복지 정책과 더불어 환경 규제 등을 위한 국가 개입이 축소되면서 자유시장의 논리가 점차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냉전체제의 해체로 자본주의 경제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선진국들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여타 국가들에도 확산되었다(Harvey, 2005). 이에 따라 개별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자본(특히 금융자본)과 노동 및 정보의 초공간적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다국적(초국적)기업들이 세계경제를 장악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전후 세계경제질서를 규정하던 GATT체제가 더욱 완전한 자유무역을 전제로 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전환하게 되었고, 그 외의 여러 국제기구들, 예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이 세계 경제질서를 좌우하게 되었다.

세계의 각 국가들 그리고 도시 및 지역들은 이러한 세계화 과정의 영향에 따라 근본적인 변화—즉, 흔히 세계화 과정에 대칭되는 ‘지방화’ 과정—를 겪게 되었다. 각 국가들은 기존에 담당했던 역할을 시장메커니즘

에 돌리면서 특히 서민계층이나 소수집단, 또는 소외지역에 대한 복지 정책을 축소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제도를 완화 하게 되었다. 또한 각 국가들이 수동적이든 피동적이든 간에 자유무역을 위한 관세의 완화 또는 철폐를 추구함에 따라 다국적 자본들이 더욱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 개별 지역에까지 직접 투입되었다. 대부분의 국가 및 지방정부들은 경제침체를 명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복지 지출을 축소하는 한편, 역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개발정책들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중앙 및 지방)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국가 또는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징후를 별로 보여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층 및 지역 간 격차, 즉 사회공간적 양극화를 점차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개발정책들은 그동안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쌓아온 환경 관련 규제제도들을 완화하거나 폐지해 환경문제를 다시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과정은 환경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즉, “생태적 문제는 세계체계의 새롭고 가속적인 상호 의존성을 드러내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개인적 활동과 지구적 문제 간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Giddens, 1991: 221). 세계적 환경문제 가운데 온실가스와 기후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등은 비교적 새로운 논제이지만 과잉인구와 자원부족과 같은 문제들은 사실 매우 오래된 논쟁점이었다.

근대사회의 발달 이후 세계화는 3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첫 번째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대륙을 탐험한 이후) 지난 500년에 걸쳐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등이 유럽에 의해 식민화되었다. 두 번째로는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지난 50년간 탈식민화시기에 서구의 발전 논리가 비서구적 사회로 확산되어 신식민화를 초래했다. 세계화의 세 번째 단계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GATT체제가 완결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자유무역의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재식민화’가 촉진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의 각 단계들은 서구적 이해관계에 봉사했으며 다른 문화와 환경에 지대한 충격을 주었다(Shiva, 1999).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 번째 단계의 세계화 과정의 핵심은 완전한 자유무역이다. 자유무역의 논리는 개도국들이 자연자원의 생산과 교역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며 이에 따라 해당 분야의 개발을 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비교우위에 기초한 자유무역의 옹호론자들은 자원 이용 및 경제 성장에서 아무리 열등한 국가라도 양국 모두 수혜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남미 국가들의 경우 무역 자유화와 세계경제에의 편입으로 자연자원·원료가공형 산업은 성장한 반면 다른 공업 부문들은 쇠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무역자유화 이후 총수출에서 특정 품목(대부분 1차 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화 과정이 특정 산업을 특정 국가 및 지역에 더욱 특화시켜 그곳의 자원을 가속적으로 고갈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의 자연자원을 보존해야 할 세계적 유산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실제 후진국들의 자원 채굴을 노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선진국에 근거를 둔 (초국적)자본 또는 이와 일정한 관계를 지니는 후진국 매관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화 과정 속에서 촉진되어온 자유무역, 특히 WTO체제의 전환 이후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체결되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과 그 효과는 최근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유추할 수 있도록 한다.

사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첫째, 외국투자자의 권리는 내국민 대우 또는 최혜국대우 등을 통해 한국의 환경권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둘째, 이행의무부과 금지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들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셋째, 환경규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가에 대한 제소권’을 통해 그 분쟁해결 절차에서 외국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게 된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 되면 제3세계 국가에서 그동안 공기업으로 주로 운영되어오던 자원 관련 산업은 국제적 압력과 자본의 부족으로 민영화되는데, 특히 다국적기

업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독과점적 관행이 자원의 국제적 가격을 통제하게 되고 이를 통해 얻는 이윤은 물론 다국적기업들의 수준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가들은 공해산업이 개도국의 이른바 ‘공해 천국’으로 재입지하기 때문에 환경기준이 퇴락하게 된다는 ‘바닥을 향한 경주’에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경험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연구들을 제시하면서 “세계화 시대 동안 4개국(미국, 중국, 브라질, 멕시코)의 주요 도시에서 매우 위험한 형태의 대기오염이 실제 감소했다”고 주장한다(Wheeler, 2000).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직접투자를 통해 유치된 대규모 다국적기업들이 OECD의 환경 기준을 개도국의 공장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무런 규제 장치가 없는 시장메커니즘이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과 자국에서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 관련 규제가 느슨한 제3세계국가로 진출하는 초국적 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²⁾ 초국적 자본이 개도국의 환경개선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과장되었거나 이데올로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의 세계화 과정과 이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시장의 논리가 국가(지역) 간, 계층(세대) 간에 형평성을 가져다주기보다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이 경험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분명하다. 이러한 환경불평등은 인간의 삶과 터전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자체를 지속불가능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동

2) 실제 미국국제경영협회(USCIB)가 “우리는 정부나 기업에 부과하는 환경, 노동에 관한 일체의 구속력 있는 의무를 반대한다”고 했듯이(Wheeler, 2000에서 인용), 초국적 자본은 개도국에 투자하면서 노동 및 환경에 대해 당사국의 규제가 없거나 최소화되기를 바란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개도국의 기업이나 지방정부는 투자협정을 맺으면서 가능한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안 선진국의 자본주의 경제는 제3세계의 저렴한 자원 공급과 이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를 대가로 발달해왔으나 제3세계 국가들이 더 이상의 저렴한 자원공급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선진국의 자본주의 경제가 더 이상 발달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제3세계 국가들을 더욱 압박할 경우 결국 자원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1990년의 걸프전쟁과 2000년대에 들어서서 세계적 위기를 고조시켰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침공은 사실 자원 확보를 위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는 석유뿐만 아니라 물이나 그 밖에 점차 고갈되거나 희소화되는 자원의 확보를 둘러싸고 심각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의 월경현상으로 이에 의한 피해보상 및 관리를 둘러싸고 국제적 긴장이 심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원 및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생태전쟁(eco-war)은 자원의 불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더욱 심화하면서 지구환경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생태전쟁에서 지구환경을 구하고 인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장의 논리에서 환경정의의 윤리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2) 시장 논리에서 환경정의로

오늘날 촉진되고 있는 세계화 과정의 이면에는 시장의 논리 또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시장은 국가와 사회의 복지가 아니라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작동한다. 이에 따라 시장을 규제하는 국가 및 사회의 힘이 아니라 역으로 국가와 사회를 규율하는 시장의 힘이 세계를 지배한다. 세계화를 추동하는 자본주의 경제는 이러한 시장의 논리에 따라 작동하면서 어떠한 비화폐적 대가(특히 노동과 자연의 가치)를 치르고서라도 자본을 축적시키고자 한다. 한 예로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아직 사용가치가 있는 생활용품을 폐기하고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

도록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 이로 인해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고 자원 소모량이 급증하면서 자원 고갈이 촉진되고 오염물질의 배출량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세계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는 심각한 국제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부유국에 기반한 자본은 자신의 투자수익을 최대한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1~2년 만에 최초의 투자액만큼 이윤을 요구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자본회전의 가속화는 사실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의 남용을 가져온다. 즉, 환경보호는 다가올 세대의 필요라는 시간의 확장을 요구하지만 자본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시간의 단축을 강제한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장기적 환경정책은 가능한 회전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자본의 요구와 대립한다(Foster, 2001).

이러한 시장의 논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상품화되어야 한다. 자연자원은 노동이나 자본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를 위한 생산요소로서 다른 생산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상품화된다. 한 예로 기후변화는 대기의 온실가스가 다량으로 배출·축적되어 이제껏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온 기후체계에 변이를 일으켜 자본의 지속적인 축적에 제한을 가하는 위협요소로 인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온난화방지협약이 체결되었지만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부유국들도 자국의 경제성장이나 초국적 자본의 압박 때문에 가입을 유보하고 있다. 대신 기후온난화 문제에 대한 자본주의적 해법은 자본주의 시장의 형성·운용이 탄소의 순환 같은 자연 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대기에 대한 사유권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대기가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 전화되며 나아가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이윤획득을 위해 대기의 현명한 보존과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대기는 자본의 자산의 일부로 포섭된다.

신자유주의적 입장에 의하면 시장은 환경적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메커니즘이며, 상품화는 물질적 희소성이 세계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적 산출에서 물질적 의존도 및 에너지 의존도가 크게 감소한 것처럼 인식되면서 경제 및 기술의 추가적 발전이 이로 인해 발생한 환경 위기의 치유를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국제무역에서도 자원의 수출 증대는 자연의 착취를 증대하지만 유희자원을 이용해 경제를 성장시키면 사회적 부의 증대와 더불어 희소자원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변된다(Bommer and Schulze, 1999). 좀 더 포괄적으로 보자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해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따라서 세계화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들에 더 큰 혜택을 줄 것이며 빈국 내에서 자본의 투입으로 고용이 증대함에 따라 국내 소득불평등도 감소함으로써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각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병존할 것이라는 이러한 주장은 선진국이나 개도국의 많은 정치가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으며, 주류 경제학자들과 세계은행, WTO, 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Muradian and Martinez-Alier, 2001).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신자유주의적 인식을 심각하게 부정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빈국과 부국 간 1인당 소득의 격차는 지난 1970년대 이후 계속 증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여전히 심각한 경제적 침체, 나아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소득 불평등은 국가 간에서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심화되고 있으며, 심지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증대되는 추세다. 후진국에 대한 국제적 원조는 감소하고 있으며 기아와 질병이 계속되고 있다. 전형적인 예로 에이즈치료제의 국제적 독점으로 아프리카와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에이즈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후진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대체로 소수 자원보유국들(특히 석유)에 한정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서 공해집약산업들(화학, 펄프 및 종이, 연료 등)의 비중이 국내적 투자보다도 훨씬 높다. 선진국의 국내 총생산(GDP)에서 물질 의존도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경제의 ‘탈물질화’가 기대되지만 실제 선진국들은 양적으로 계속 더 많은 물질을 소모하는 반면,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자연자원의 수출국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환경의 보전을 명분으로 한 국제적 규제전략은 국제 환경정의가 아니라 실제 자본축적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된다(Michael, 1997). 이러한 사례로 이른바 ‘녹색축적체제(green regime of accumulation)’를 선도하는 유전자조작기술과 같은 생물기술(bio-technology)을 들 수 있다(Martinez-Alier, 1997). 199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뿐만 아니라 EU 국가들과 일본 등은 생물기술을 새로운 전략적 산업영역으로 설정하고 엄청난 투자를 했다. 세계은행은 생물기술을 통한 새로운 녹색혁명이 후진국의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확신하고 이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생산되는 식량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생물기술의 발달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 생물기술 개발은 많은 비용이 들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된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 높은 이윤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세계적 환경위기를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인 축적을 위해 자연을 더 이상 자본의 영역 밖에 방치한 채 무제한 착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앞서 언급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자본주의적 대책을 살펴볼 수 있다. 즉, 환경비용을 생산비용에 내재화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국가 간 또는 세대 간 형평성이나 지속가능성 원칙을 도외시한 채 대기를 상품화하고 기후시장을 형성, 활용하는 ‘자연의 자본화’ 전략이 도입되고 있다. “자연의 자본화란 자연을 자본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으로서 자본의 내재적 범주로 파악해 자본의 끊임 없는 성장을 위해 자연의 보존 및 재생산을 도모하는 전략을 말한다”(윤순진, 2002). 이른바 교토 메커니즘은 시장의 활동이 온실가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논리에 의존해 ‘자연의 자본화’를 추진함으로써 세대 간 및 세대 내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장의 논리는 인류가 당면한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본축적을 위한 것임이 확실하다. 따라서 자연의 자본화를 추구하는 시장 논리는 생태적 평등을 지향하는 세계적 윤리로서 환경정의의 원칙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정의의 개념과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서술하겠지만, 환경정의운동이 세계화·지방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촉발해 개별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환경정의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환경으로부터 얻은 혜택을 동등하게 공유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여기서 환경이란 자연 그 자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놀고, 공경하는 장소들”을 의미한다 (Adamson, et al., 2002: 4). 환경정의는 환경 재난으로부터 모든 인종과 사회·경제적 집단의 평등한 보호, 자연자원에 대한 모든 지역과 사람의 평등한 접근과 보존을 의미한다.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환경정의운동은 특히 빈민이나 유색인의 지역사회에서 환경오염의 편향된 발생을 제거하고 이들이 환경퇴락과 오염으로 발생하는 위험의 위협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며, 생활과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연자원에 균등하게 접근하도록 요구한다. 주변화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가족, 공동체, 일터와 놀이터 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퇴락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이들은 생태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의 통합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정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문화적 규범과 가치, 규칙, 규정, 행동, 정책, 그리고 의사결정”과 관련되며,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환경이 (우리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공급해주며 생산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상호 교류”할 수 있게 된다(Bryant, 1995: 6). 그러나 사전적 의미에서 환경정의는 좀 더 직접적으로 환경불평등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환경문제가 사회정의와 직결되어 있음을 함의한다. 즉, 환경정의론자들은 환경문제가 사회정의 이슈와 무관하다는 견해를 비판하면서, 환경 이슈를 인식하고 탐구할 때

계급과 인종 및 성의 사회·경제적 관계가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인종과 계급, 성에 근거해 차별을 낳는 권력불평등과 기회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어떤 인간 집단이 환경 파괴에 따른 해로운 영향을 부당하게 부담해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정의는 현재 진행되는 착취와 불평등 때문에 어떤 사회집단이 지속적으로 특권을 유지하게 되는 사회의 생산체제가 환경 및 인간의 복지와 연관되어 있다고 인식한다”(Talbot, 1998: 93). 이러한 점에서 환경정의론자들은 노동과 더불어 자연을 착취하고 이에 따라 생산된 자원과 사회적 부를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현 사회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이를 전환하고자 한다.

세계적 환경정의는 지역적 환경정의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다 (Jamieson, 1994). 한 예로 미국의 경우 환경정의운동은 유럽 이주민들과 싸운 미국 원주민(인디언)들의 이야기에서 출발해 서구 자본주의의 팽창과 이 과정에서 특히 주요하게 내재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가 제3세계 자연자원을 어떻게 착취했는가에 관심을 가진다(Katz, 1997). 제3세계 국가들의 자연자원에 대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수탈과 환경 파괴 과정은 원주민들의 환경권과 환경의식을 짓밟으면서 결국 원주민들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멸시킨다. 또한 최근 지구적 남북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격차나 불균등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 불평등 또는 부정의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한면희, 2002). 세계적 환경정의에 관한 논의에서 더욱 중요한 일은 현재 진행되는 세계화 과정 속에서 환경정의를 어떻게 무시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따라 세계적 환경정의를 재구성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가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한 예로 멕시코 치아파스(Chiapas)에서 사파티스타 국민해방군(the Zapatista National Liberation Army)은 1994년 1월 1일 4개 도시를 장악하면서 세계적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사실 이 날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하는 날이었다. 사파티스타들은 NAFTA와 같은 세계적 제도들이 자급자족적 소농체제를 희생시키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농들에게 이윤을 보장해준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환경정의운동을 국제적 연대의 중심 이슈로 가

저오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성, 농부, 토착민, 도시의 서민들이 연대하면 정부, 대기업, NAFTA와 WTO와 같은 세계적 기구들에 맞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Adamson, et al., 2002: 4). 환경정의운동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파티스타의 활동 사례에서 나아가 사실 1999년 미국 워싱턴의 시애틀에서 이루어졌던 WTO 반대 운동과 그 이후 지속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대운동은 지구적 환경정의를 위한 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

3. 환경정의를 위한 실천운동과 이론연구

1) 환경정의 실천운동의 등장과 발달

환경정의운동은 지역사회 및 종교계에서 시작된 여러 갈래의 환경 관련 운동에서 출발한다(Gottlieb, 1993; Dowie, 1995 등 참조). 한 예로 1960년대 후반 미국 사회에서는 ‘인종적 정의를 위한 연합기독교위원회(the United Church of Christ Commission for Racial Justice)’를 중심으로 인종격차에 초점을 둔 새로운 사회운동이 등장했다. 이 위원회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특히 1987년 환경과 관련된 인종적 차별에 관한 보고서를 출판했다. 이 보고서에 의해 인종은 상업적 유타폐기물처리장의 입지에서 결정적으로 주요한 요인이며, 빈민과 유색인 지역사회는 편중된 건강 위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환경적 인종주의(environmental racism)’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여기서 인종주의는 “환경적 정책결정과 규제 및 법률의 적용, 유색인 지역사회로 유타폐기물시설의 편중된 입지, 지역사회에 유독물과 공해물질의 폐기에 대한 공격 차별, 환경운동의 지도력에서 유색인의 배제 등에서 나타나는 인종적 차별”을 의미한다(Bullard, 1993). 이러한 사실은 빈민과 유색인 지역사회에서 환경정의를 요구하는 운동의 중요한 계기

가 되었다.

환경정의운동의 또 다른 중요한 계기들로,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지역의 농장노동자 캠페인, 뉴멕시코에 조직된 치카노(Chicano), 그 외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했던 원주민 저항운동(부족 수자원의 오염, 신성한 토지에서 자원 채취, 우라늄 오염, 유독성 및 핵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일방적 결정, 이웃이나 가족이 유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데 대한 여성들의 반대운동)을 포함한다(Bullard, 1993, 1994; Westra and Wenz, 1995). 즉, 환경정의에 관한 주장은 1980년대 후반 이후, 특히 미국에서 국지적 환경 및 생활공동체 운동을 전개해온 실천적 운동가들에게서 먼저 제기되었다.

이들은 1970년대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생태운동이 점차 전국적이고 전 지구적 규모로 확대되었지만, 이러한 주류 환경운동과 이들의 환경론이 도시 내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보다는 야생동물이나 자연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중산층 백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 환경정의운동을 제기했다(Szasz, 1994; Chiro, 1996 등 참조).

환경정의운동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는 1991년 세계 여러 국가들로부터 워싱턴 D. C.에 모인 300여 명의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회의인 ‘전국유색인종환경지도자 제1차 회의(the First National People of Color Environmental Leadership Summit)’이다. 이 회의의 목적은 세계 전역에 걸쳐 유색인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아래에서부터 작동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해 환경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다인종적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 회의에 모인 대표자들은 환경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 의제들을 제시한 17가지 환경정의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발표된 선언문의 전문에 의하면, 이 회의에 모인 유색인종환경지도자들은 ‘우리의 대지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빼앗으려는 시도에 맞서 모든 유색인종이 동참하는 전국 및 전 세계 운동을 펼칠 것을 선언하고, 우리 어머니 지구의 신

성함에 우리가 영적으로 상호의존하고 있음을 재천명'하면서 '각각의 문화와 언어, 자연세계에 대한 믿음, 우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존중하고 찬양하며, 환경정의를 준수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생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 대안을 촉진'할 것을 결의했다. 이러한 전문에 이어 서술된 환경정의의 17가지 원칙은 앞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포함한다.

1. 환경정의는 어머니 지구의 신성함과 생태학적 통일성, 모든 종의 상호결속 그리고 생태파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승인한다.
2. 환경정의는 공공정책이 모든 인간에게 호혜적 존중과 정의에 근거하기를 요구하며, 어떤 형태의 차별과 편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기를 요구한다.
3. 환경정의는 인간과 다른 생명체가 지속적으로 이 행성에서 살 수 있도록 땅을 윤리적이고 균형 있게, 그리고 책임 있게 사용할 권리를 명한다.
4. 환경정의는 하늘과 땅, 물, 식량을 맑게 할 근본적 권리를 위협하는 핵 실험과 폐기물, 유해 폐기물 및 유독 물질 처리에서 보편적으로 보호받을 것을 요구한다.
5. 환경정의는 모든 인간이 정치적·사회적·문화적·환경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승인한다.

이와 같이 환경정의운동은 환경정의 원칙의 주창과 더불어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민종적 및 다민족적, 국가적 및 국제적 공동체의 구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1991년 회의에 참여했던 환경정의운동의 구성원들은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발전에 관한 유엔회의'(의제 21을 제정·채택했던 지구정상회의)에서도 지도적 역할을 할 것을 결의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과 세계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환경운동

단체들도 환경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2002년 '전국유색인종환경지도자' 제2차 회의에서는 국지적 환경정의 공동체 집단과 좀 더 큰 주류 조직 간 연대의 구축과 협의를 위한 '협력의 원칙들'을 제정했다.

이러한 환경정의운동에서 새로운 점은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고양된 환경의식이나 실천의 강도라기보다 환경을 둘러싼 담론과 실천의 재정의 또는 재구축을 통해 근본적으로 사회적·환경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에 있다. 즉, 이들은 환경불평등 및 환경퇴락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 고유한 문화의 존중, 환경정의 자체의 보장, 경제적 대안의 촉진, 정치·경제·문화적 해방의 확보 등을 환경정의운동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고자 한다. 특히 이 운동의 참여자들은 환경정의와 환경인종주의의 개념의 접합, 풀뿌리 정치조직의 새로운 형태 조성 등을 강조했고, 국지적 생활공동체 운동에 기초해 점차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국가적·국제적 차원으로 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다. 이러한 사실들과 관련해 환경정의운동은 기존의 환경운동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닌다.

우선 환경정의운동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정하면서 사회의 경제·정치적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불평등에 반대한다. 즉, 환경정의운동은 자연환경에서 발생하는 환경퇴락보다는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에 있어 계층적·인종적 차별성에 초점을 두고 이를 반대하며, 나아가 이러한 환경불평등을 유도하는 권력과 부의 편중된 분배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한다. 미국 사회에서 이러한 불평등은 가장 기본적으로 인종적 차별성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환경적 인종주의'라는 용어가 제시되기도 했으며, 반면 이러한 불평등이 빈곤, 저소득, 사회·경제적 능력의 부재 등과 관련되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Heiman, 1996). 따라서 환경정의운동의 구체적 실천은 좁은 의미의 자연환경이 아니라 공동체적 인간생활 및 삶의 질과 관련된 모든 환경적 조건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특히 환경정의운

동은 인종적, 계급적·성적 차별성에 의한 생태환경적 불평등에 초점을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존중과 힘의 강화를 추구했다.

이러한 환경정의운동에 의하면 환경은 단순히 인간 생활과 무관한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일상적 삶이 이루어지는 터전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환경정의운동은 사회와 자연 간 구분을 거부하고 대부분 사람들의 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도시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환경정의 운동의 활동가들은 ‘새로운 환경주의자’로 자신을 규정하기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다의 ‘고래나 열대 우림의 보호’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넓은’ 환경운동의 탈피로서 자신을 이해하지 않는다. 환경정의운동가들을 ‘새로운’ 시민권 또는 ‘새로운’ 사회정의 활동가들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Chiro, 1996: 303). 이를 위해 환경정의운동은 좁은 의미의 환경(자연)운동을 능가해 다양한 운동 간 구분을 초월한 지역사회(또는 공동체)운동에 더 친화적인 활동의 특성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환경정의운동은 경제적·기술적으로 선진국들에 의한 개도국 자연자원의 과잉 착취에 대한 원주민들의 저항과 토착적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도 포함되었다. 오늘날 환경정의운동은 세계적·국제적·국가적·지역적 수준에서 자연자원의 분배, 자연 재해로부터의 보호 등의 측면에서 계급, 인종, 성의 차이에 따라 심각한 격차가 발생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공정한 분배와 정당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환경정의에 관한 논의는 한 세대 내의 사회적 차원을 능가해 세대 간 및 종간의 정의로운 배분문제로 확대되기도 한다(Cooper and Palmer, 1995).

이러한 점에서 환경정의운동은 주류 또는 전통적 환경운동 및 이들이 견지했던 환경론의 지배적 의미에 도전해 환경이론과 실천에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환경정의운동은 자원의 고갈이나 자연의 황폐화 그 자체보다는 이로 인해 유발되는 자원 이용 및 환경 피해가 성이나 인종과 같은 신체적 조건 그리고 소득 및 권력 등과 같은 경제·정치적 조건에 따라 불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Hofrichter, 1993: 3). 나아가 환경

정의운동은 이러한 불평등에 대항해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지속시켜 나갈 권리로서 생존권, 쾌적하게 생활을 할 권리로서 환경권,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로서 시민권 등을 요구한다. 특히 환경정의운동은 원주민 또는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환경정책에서 배제되거나 그 피해를 집중적으로 전가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자 권리(minority right)로서 유의성을 가진다(Almond, 1995; Hartley, 1995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하비(Harvey, 1996: 391)는 “한편으로 힘의 강화와 인격적 자기존중의 추구, 다른 한편으로 환경주의적 목적의 결합은 환경정의를 위한 운동이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생태적 정의의 목적과 사회적 정의의 목적을 엮어냄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환경정의운동이 등장, 발전해나가는 상황에서 환경정의의 개념은 정부의 환경정책이나 관련된 제도에도 주요한 이슈가 되었으며, 학계에서도 환경에 관한 사회과학, 철학 등의 새로운 연구 주제로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우선 정책적 측면에서 실천적 환경정의운동에서 시발된 환경정의에 관한 주장은 미국 정부의 정책에도 크게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 세계에도 주요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환경정의운동의 영향으로 1992년 미국에서는 『환경정의법』이 제정되었으며, 클린턴 행정부의 집권을 위한 인수과정에 환경정의 팀이 구성되어 환경문제의 인종적·계급적 불평등에 관한 자료 수집과 정책대안 제시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미국 환경보호청은 환경정의의 개념에 기초해 환경적 형평성에 관한 주요한 환경정책들을 입안·시행하고자 했다(Dowie, 1995; Hartley, 1995). 환경정의운동은 또한 학문적으로 환경불평등이나 환경인종주의 등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를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정의를 더욱 전통적인 사회정의의 철학이나 사회이론의 배경 속에서 개념화하려는 이론적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와 같이 환경정의운동은 단순히 자연자원의 고갈이나 환경 파괴 자체를 문제시하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로 발생하는 자원 접근에의 불평등

과 환경 피해에 대한 방어능력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환경적 부정의를 유발하는 경제·정치적 과정에 반대하는 한편, 삶의 터전으로서 환경을 공유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한다. 이러한 환경정의 운동은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적 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정의에 초점을 두고 환경운동을 전개하는 ‘환경정의시민연대’를 비롯해 대부분의 시민환경운동은 환경정의를 주요한 이념으로 설정하게 되었다(권해수, 2002). 나아가 환경정의운동은 개별 지역이나 국가 단위에서 환경적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시민권 운동, 반전·반핵운동, 여성운동 등에 합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 반대운동 또는 대안적 세계화 운동에도 포괄되었다. 즉, 세계화 과정에 반대하는 환경정의운동은 초국적기업, 세계은행, IMF와 같은 세계적 금융기구,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포함한 많은 세계화 기구 및 장치들이 제3세계 국가들에서 사회적·생태적으로 파괴적 개발을 촉진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세계의 각 지역들이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에 기초해 자율적인 발전과정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2) 환경정의에 관한 이론적 연구의 동향

학문 영역에서 환경문제를 사회정의와 관련시켜 분석,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1970년대부터 있었지만 환경정의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실천적 환경정의운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이후, 즉 199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점은 1990년대 전반 및 중반부에 환경정의와 관련된 많은 단행본이 발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학·정치학·지리학·환경학(좁은 의미) 등 많은 분야의 학술지에서 환경정의에 관한 특집 주제를 다루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환경정의와 관련된 연구들은 현실 사회에서 환경불평등이 어떻게 나타나며 이를 유발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 이러한 경험적 연구에 기초해 환경불평등을 해소 또는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연구, 그리고 환경정의의 개념을

더욱 세련시켜 정형화하려는 이론적 작업(그 외에도 환경정의를 고양하기 위한 교육 등도 포함)으로 구분될 수 있다.

환경정의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우선 환경정의운동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주장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에서 시작되었으며, 또한 현실 세계에서 환경적 부정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했다. 즉, 이에 관한 연구는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환경문제의 사회공간적 불평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Bowen et al., 1995; 최병두, 1998), 이를 해소하려 하는 환경정의운동에 더욱 세련된 환경정의의 이념을 제시하거나 국내 및 국제 환경정책들에 주요한 원칙이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환경문제의 분석은 자원 이용이나 비용 부담, 피해의 방어 능력, 특히 부의 외부효과를 낳는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들(매립장, 소각로, 핵 발전소 등)의 입지 등이 사회공간적으로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불평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했다. 즉, 환경정의는 사회·인종적, 정치·경제적 배경하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적 불평등의 역동성을 설명하기 위한 학술적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었다.

환경정의운동가들이나 이에 관한 연구자들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성, 인종, 계급의 문제들과 접합시켰으며, 또한 환경정의와 관련된 주장들은 활동가들의 실천에 바탕을 두고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주류 환경운동 및 이들의 환경론과는 상이했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환경적 불평등이 가장 기본적으로 인종적 차별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환경적 인종주의’라는 용어가 제시되었다(Bullard, 1993; Westra and Wenz, 1995). 그러나 다른 한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종 변수는 빈곤, 저소득, 사회·경제적 능력의 부재 등으로 환원될 수 있으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계급적 문제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Heiman, 1996). 환경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인종이든 계급(또는 성)이든 간에 이에 관한 연구들은 환경정의운동을 고무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개발을 촉진시켰다.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한 정책의 개발은 우선 이 개념에 기초한 정책 기조 또는 원칙을 제도화했으며, 더욱 구체적으로 환경문제의 사회공간적 불평등을 시정하고 새로운 정책들이 더 이상 이러한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입안·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정의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는 정책의 입안 및 시행과정의 민주성을 강조한다. 즉, 환경정의의 원칙은 환경 관련 정책들에서 경쟁하는 대안들 간에 선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환경정의 개념의 응용은 정책의 합리적 의사결정 및 그 효과의 형평성 확인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생태적 민주주의’의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했다(Mathews, 1996).

이러한 환경정의 개념을 응용한 경험적 연구나 정책적 대안 제시는 일국적 상황에서 나아가 국제적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한 예로 선진국들의 자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촉진되고 있는 후진국들의 열대림 개발과 원주민들의 생활 및 문화 터전의 파괴, 또는 선진국들의 공해산업과 폐기물질의 후진국 수출 등은 국제적 환경정의의 측면에서 강력히 비판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등 지구적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부담에서도 국제적 환경정의의 개념이 응용되기도 한다(Michael, 1997).

환경정의의 개념을 세련되게 만들기 위한 이론적 연구는 우선 환경정의운동에서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주장을 정리해 체계화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점차 학문적 영역으로 깊게 들어감에 따라 사회정의와 관련된 기존의 다양한 사회이론적 또는 철학적 전통이나 사상 가운데 특정한 입장과 관련시켜 새로운 환경정의의 개념을 구축하고자 했다(Wenz, 1988).

이러한 전통이나 사상들은 아래에서 논의할 내용과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환경정의론이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형식적 정의론과 실질적 정의론으로 구분되거나 자원의 수혜와 부담의 배분에 있어서의 분배적 정의론이 강조되기도 했다. 그리고 다양한 이론의 개진으로 인해 환경정의의 개념이 혼돈을 일으키거나 대립적 같

등을 유발하게 됨에 따라 이 개념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논쟁이 빈번하게 제기되었다(Almond, 1995; Hampson and Reppy, 1996). 뿐만 아니라 일부 학자들은 개별 환경정의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각의 장단점을 고찰한 후 종합하거나 각 환경정의론이 제시되는 학문적·현실적 배경을 고찰하고 이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분석하기도 했다(Harvey, 1996; Low and Gleeson, 1998).

환경정의에 관한 연구가 점차 학문적 영역으로 깊게 들어감에 따라 많은 사회이론가들과 철학자들은 사회정의와 관련된 기존의 다양한 사회이론적·철학적 전통이나 사상 가운데 특정한 입장과 관련시켜 새로운 환경정의의 개념을 정형화하고자 했다(Wenz, 1988; Harvey, 1996; 최병두, 1998 등 참조). 이러한 전통이나 사상에는 다양한 정의론, 즉 자유론적 정의론, 공리주의적 정의론, 계약론적 정의론, 맑스주의적 정의론, 포스트모던 정의론 등이 포함되며, 그 외에도 칸트적 정의론,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목적 정의론, 동물권 개념, 생물종 개념 등 많은 관점이나 입장이 도입되어 환경정의에 관한 논의를 다양하게 했다.

자유론적 정의론, 공리주의적 정의론, 계약론적 정의론은 모두 넓은 의미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세부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때로는 상호비판적이지만 정의를 개인 간 의무관계 및 사회적 균형과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며 분배적 측면에서 정의를 강조한다는 것 등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환경정의론은 환경평등, 갈등해소, 정당한 몫 분배, 협상을 통한 타결 등 여러 가지 자유주의적 개혁을 뒷받침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되기도 한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환경정의론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환경정의에 대한 대안적 개념을 모색하기 위해 맑스주의적 환경정의론 또는 포스트모던 환경정의론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열기 속에서 환경정의에 관한 학술적 관심이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1997년 호주에서는 환경정의에 관한 대규모 국제학술

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문순홍, 1997; Low, 2000).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환경정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그동안 많은 연구 결과물들이 발표되었으며, 시민사회에서의 환경정의운동에도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이상현, 1995; 토다 키요시, 1996; 최병두, 1999 등 참조). 또한 환경정의에 관한 이론화 작업 및 현상에 관한 연구가 많은 관심을 끌고 그 결과물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환경정의교육은 분배의 제약과 재난적 피해를 바로 잡기 위한 활동 프로젝트, 공동체 구축, 연대적 저항, 지식 네트워크 등을 주요한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환경정의교육은 저소득 및 유색인 지역사회에 전가되는 부담의 불평등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새로운 환경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owers, 2002 등 참조).

4. 지구공동체 윤리로서 환경정의를 위한 교육

환경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운동과 이를 이론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이를 환경교육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실제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많은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환경정의를 주요한 주제로 포함시키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적·공동체적 능력을 배양하는 환경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이미 공식화된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더욱 진보적인 입장에서 환경정의와 관련시킴으로써 환경교육에서 환경정의의 개념이 강조되었다. 즉, 전통적 환경교육이 생태학과 환경적 이슈, 시민들의 환경의식과 행동 등을 다루었다. 최근에는 저소득층과 인종적 소수집단의 사회-환경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이를 환경교육에 반영하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교육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환경정의에 관한 이슈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되는 것이다(Bowers, 2001a).³⁾

환경정의교육의 내용은 사회·인종적·정치·경제적 배경하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적 불평등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즉, 환경정의교육은 세계적·국제적·국가적·지역적·국지적 수준에서 자연자원의 분배 및 계급, 인종, 성의 차이에 따라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 등이 어떠한 격차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공정한 분배와 정당한 보호를 요구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환경정의는 저소득 및 유색인 지역사회에 전가되는 부담의 불평등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포함한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환경정의 교육은 경제적·기술적으로 선진국에 의한 개도국 자연자원의 과잉 착취에 대한 원주민들의 저항과 토착적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도록 한다.

사실 모든 교육은 환경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교육을 암묵적으로 포함하지만, 실제 미국에서 환경교육이 공식적인 영역으로 독립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1970년 4월 22일 첫 번째 지구의 날을 위한 공적 행사와 학술적 논쟁에 따라 지구환경을 개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미국에서는 『국가환경정책법』이 통과되었고, 1971년에는 북미환경교육협회(the North American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Education: NAAEE)가 창립되었으며, 유엔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를 개최했다. 북미환경교육협회에 의하면 환경교육은 환경과 이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다루는 다학문적 교육과정으로 이해되었다(Kahn, 2003).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3) 환경정의교육은 단지 제도 내 초·중등학교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전공 및 교양과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환경교육, 나아가 사회에 이미 진출한 성인들을 위한 교육도 포함한다. 특히 성인을 위한 환경정의교육은 분배의 제약과 재난적 피해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 프로젝트, 공동체 구축, 연대적 저항, 지식 네트워크 등을 주요한 주제로 설정한다(Hill, 2003).

환경교육은 효율적인 교육, 문제 해결, 정책결정 그리고 관리를 위한 기초로서 환경적 이슈와 의문의 분석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환경교육의 목적은 환경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숙련된 개인의 교육을 고취하는 것이다. 광의적 맥락에서 환경교육의 목적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들의 범위와 복잡성에 관한 시민적 의식의 발달을 보조하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정책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NAAEE 1983; Grass and Agyeman, 2002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초기 환경교육은 환경문제의 효율적 해결과 이를 위한 정책 결정 능력의 향상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교육 목적은 그 자체로 상당히 도구적·기술적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교육 정책은 선도적인 수사 이상의 어떤 것을 거의 포함하지 못했다. 그 후 20년 동안 환경교육은 독립 교과로 발달하게 되었고, 중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학습시간은 다소 늘어났지만 실제 단편적인 환경문제의 서술과 전통적인 생태계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기에 학생들의 학습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⁴⁾

환경교육이 인간과 지구환경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지만 기술적·도구적 접근이 아니라 생태적·윤리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 것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이다. 당시 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환경과 발전에 관한 이슈들을 인

4) 그러나 미국의 『환경교육법』에서는 “환경교육은 인간과 지구와의 관계와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간과 자연적·인공적 환경과의 관계를 다루는 교육의 과정으로서 에너지, 인구, 오염, 자원의 분배와 고갈, 보전, 수송, 기술, 경제적 충격, 그리고 도시·농촌의 개발 계획이 인간의 총체적 환경에 대해 가지는 관계를 다룬다”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환경교육의 요소를 ‘환경에 관한 교육’, ‘환경 내의 교육’, ‘환경을 위한 교육’으로 나누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환경을 통한 교육’, ‘환경과 더불어 하는 교육’을 추가하기도 한다(Grass and Agyeman, 2002 참조).

급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응하는 환경적 및 윤리적 지각, 가치 및 태도, 기능과 행태들을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의사결정에 효과적인 대중적 참여를 위해 중요하다. (의제 21의 헌장 36)

의제 21에서 제안한 환경교육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윤리적 지각과 태도를 강조하는 한편 의사결정에서 대중적 참여를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여기서 강조하는 환경윤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속에 함의된 빈곤의 타파와 세대 간 형평성을 전제로 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도 빈곤 또는 환경불평등의 발생 원인과 이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정의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환경정의교육은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포괄하지만 이를 능가하고자 한다. 사실 환경정의교육의 중요성은 앞서 논의한 ‘환경정의의 원칙들’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즉, “환경정의는 현재 및 미래 세대에게 다양한 문화적 관점에서 우리의 경험과 인식에 기초해 사회적 및 환경적 이슈들을 강조하는 교육을 요청한다”(환경정의의 원칙, 제16조). 이 원칙은 환경이용에서 세대 간(그리고 사회 집단이나 계층 간,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등) 형평성을 전제로 다문화에 대한 인정이 환경정의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환경교육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형성된 인간사회와 자연환경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사회문화적 조건의 차이, 그리고 사회적 다양성과 환경정의 간의 연계를 강조한다. 환경정의교육에서 다문화에 대한 강조는 주류 다문화주의 교육과는 다르다. 풀뿌리 주민운동에 기초한 환경정의교육은 궁극적으로 사회-환경적 정의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는 반면, 주로 포스트모던 이론에 근거를 둔 다문화주의 교육은 대체로 차이와 다양성 자체를 찬양하는 것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Zehle, 2002: 337). 따라서 환경정의교육은 다문화주의 교육을 능가해,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문제의 차별적 영향을 해소하고 사회-환경적

<표 1> 전통적 환경교육과 환경정의교육의 차이

	전통적 환경교육	환경정의교육
교육 목표	효율적 문제 해결과 정책결정	환경정의에 기초한 공동체 구축
주요 관심	자연의 생태계와 환경오염	도시의 계층·인종·지역 간 불평등
주요 주제	환경 파괴 및 오염의 가시적 현상	환경문제의 구조적 배경
주제 제시	개별 주제 중심, 나열식	주제들 간 관련성과 체계
주제 접근	도구적, 기술적 접근	윤리적, 실천적 접근

정의를 실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정의교육을 기존의 전통적 환경교육과 구분된다 (<표 1> 참조). 즉, 전통적 환경교육은 환경문제의 효율적 해결과 이를 위한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함양하고자 하지만 환경정의교육은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과 관련해 전통적 환경교육은 자연환경에 초점을 두고 여기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계층이나 인종 또는 성(性)과는 무관하게 전체 인류가 직면한 문제로 다루고자 한다. 물론 오늘날 환경문제는 전 인류가 직면한 보편적 환경위기는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및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계층이나 인종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환경정의교육은 특히 도시사회에서 계층 간, 인종 간, 지역 간에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자원 이용 및 환경 피해의 불평등에 초점을 둔다.

전통적 환경교육도 때로 생태계뿐만 아니라 산업화와 도시화 및 이로 인한 환경의 파괴와 오염 문제들을 주요 주제로 설정하지만 이들은 대체로 가시적 현상으로 개별적·나열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환경정의교육은 환경문제의 발생 배경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환경문제를 생태적 또는 사회-환경적 정의와 관련시켜 고찰하고자 한다. 끝으로 전통적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구적(객관적 또는 과학적)·기술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지만 환경정의교육은 이러한 문제를 시민의 생존권적 차원에서 윤리적으로 이해하고 실천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인

간 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 공생적으로 발전하는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한다.

이러한 환경정의교육은 기존에 진보적·급진적 경향을 가진 교육이론들과 결합하면서 더 큰 관심을 촉발하게 되었다. 기존의 진보적 교육이론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비판적 관점에서 사회적 문제의 배경과 대안적 해결 방안을 교육해왔지만 생태적 위기와 이의 사회문화적 근원에 대해서는 간과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보워스(Bowers, 2001b)는 듀이(Dewey), 프레이리(Freire), 맥라렌(McLaren), 지루(Giroux), 그 외 여러 교육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생태정의에 기초한 접근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환경적 이슈는 교육개혁에 관한 사고에서 최우선이어야 한다”.

기존의 관례적 환경교육은 일정 지역의 동식물과 이로 이루어진 생태계의 특성, 그리고(또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 문제와 폐기물 처리와 순환 문제 등을 주요 주제로 한다. 이로 인해 환경교과서에서 이러한 주제들은 대부분 생태계에 관한 과학적 설명이나 환경문제들에 대한 나열식 서술로 제시될 뿐이고 실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의식과 윤리는 무시되어왔다.

따라서 보워스에 의하면 환경교육을 위한 개혁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과 생태정의를 주요 주제로 포함시켜야 한다(Bowers, 2001a). 즉, “모든 교육개혁은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지속가능성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달리 말해 “생태정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혁 노력은 현 세대의 탐욕과 물질주의에 의해 퇴행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미래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환경정의교육에서 분배의 제약과 재난적 피해를 바로 잡기 위한 활동 프로젝트, 공동체 구축, 연대적 저항, 지식 네트워크 등을 주요한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환경정의교육은 저소득 및 유색인 지역사회에 전가되는 부담의 불평등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새로운 환경공동체의 건설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Bowers, 2002).

이와 같이 진보적 환경정의교육을 위해 제시되는 몇 가지 과제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정의교육의 핵심적 과제는 인간과 환경 간, 그리고 인간 간 관계를 관계의 망(즉, 네트워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교육의 주요 주제들은 생태적 현상들과 이들 간 관계뿐만 아니라 문화적·경제적·정치적 과정을 포함하는 구체적 관계의 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현상들 간의 생태적·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개별 사물들의 실체가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정의교육은 이러한 생태-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환경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다계층적·다지역적·다인종적 공동체의 구성을 목표로 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정의교육의 주요 과제들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네트워크로 구성된 다원적 생태공동체 속에서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사적·생태적 지평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Zehle, 2002: 337).

둘째, 환경정의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국지적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초국적 환경문제도 포괄해야 한다. 환경정의교육의 주요 주제들은 환경정의 자체의 개념뿐만 아니라 세계화와 자유무역, 자본주의적 상품화, 생태적 제국주의 등의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 세계화는 오늘날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발생하는 다중적 변화와 관련된다. 세계화 과정은 국지적으로 보전되어온 생태계와 그 속에서 형성된 지역문화를 파괴하고 있다. 초국적기업, 세계은행, IMF와 같은 세계적 금융기구,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포함한 많은 세계화 기구 및 장치들이 제3세계 국가에서 사회적·생태적으로 파괴적 개발을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 환경정의교육은 지표면상에서 상호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초국경적 생태-사회적 현상들 간에 내재적 관계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 실천적으로 학습하기는 쉽지 않지만 — 국제적 연대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Zehle, 2002: 343).

셋째, 환경정의교육은 이론과 실천이 결합되어 있음을 이해시킬 수 있는 민주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즉, 환경정의교육은 단순한 비판적·구성적인 교육에서 구체적 실천과 활동적 훈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Chase, 2002). 환경정의교육은 사회운동의 뿌리와 실천에서 괴리되지 않아야 하지만 환경정의의 교육 방법론에 있어서도 민주적·실천적이어야 한다. 환경정의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교사들은 교육과정에서 상호평등과 호혜성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교실 역시 사회운동의 맥락 내에 위치해야 하고 교육과정 또한 민주화되어야 한다. 교실은 학생들이 주어진 세계와 환경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토론하고 재구성하면서 건전하고 비판적이며 실천적인 시민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Figueroa, 2002: 311).

넷째, 환경정의교육은 자율성과 집단적 자기조직을 강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해야 한다. 환경정의교육은 협동학습, 역할교육, 전략적 게임 등을 통해 학생들이 국지적 환경갈등과 이에 내재된 환경부정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Zehle, 2002: 342). 또한 환경정의교육은 자연자원의 이용, 산업입지정책, 폐기물 처리과정 등에 관한 의사결정 등에서 생태적 민주주의, 민중 참여, 공동체적 합의를 강조한다. 환경이나 자연에 관한 상이한 개념들은 실제 환경정치에 관한 상이하고 경쟁적인 사고간의 갈등과 모순을 반영한다. 전통적인 정치적 과정에의 참여를 위한 동원을 넘어서 환경정의 노력은 자연에 관한 지배적 개념, 그리고 빈민과 소수자 관심의 문화적 주변화에 도전하기 위한 문화 정치의 필요를 강조한다.

5. 맺음말

지구상에서 인간은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복하기 위해 수천 년에 걸쳐 자연과 전쟁을 해왔다.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그 덕분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결과로 자연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환경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현재 진행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지방화 과정에 내재되어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집단계층, 인종, 지역) 간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심화된다면 인류는 결국 생태전쟁으로 인한 대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환경정의가 이러한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면 세계화를 추동하는 시장의 논리는 지구공동체 건설을 위한 환경정의의 윤리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정의의 윤리는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시발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정의운동에 근거를 둔다. 환경정의운동은 환경불평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다양한 계층과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제창한 것이다. 환경정의운동은 단순히 자연 생태계에 관심을 두거나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발생한 자원 고갈이나 환경 파괴 자체를 문제시하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로 발생하는 자원 접근과 이에 따른 혜택의 불평등, 환경문제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방어능력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환경적 부정의를 유발하는 경제·정치적 과정에 대해 반대하는 한편, 인간 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구성원 간 환경을 공유하고 공생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사회의 생태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한다.

환경정의에 관한 관심이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환경정의의 개념을 반영한 환경정책들이 제시되는 한편, 다양한 유형으로 드러나는 환경부정의를 관한 경험적 연구 및 환경정의를 더욱 정교하게 개념화하고자 하는 철학적·사회이론적 연구가 증대하게 되었다. 특히 환경정의의 개념화를 위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전통들—대표적으로 자유주의적, 공리주의적, 마르크스적, 그리고 포스트모던 이론들—속에서 상당히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정의의 개념화 자체가 환경불평등을 암묵적으로 조장하는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또 다른 이데올로기의 생산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환경정의의 원칙에 대한 더욱 폭넓은 연구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이에 대한 환경교육은 생태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바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환경정의교육은 도시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계층, 인종, 지역 간 환경 불평등의 문제들을 부각시키고 여기에 윤리적·실천적으로 접근해 환경 정의에 기초한 생태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자연의 생태계와 환경오염 문제 등에 관심을 두고 도구적·기술적으로 접근해 환경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추구하는 전통적 환경교육과는 목적을 달리한다. 또한 환경정의교육은 자원 이용 혜택의 차별성과 환경문제 피해의 불평등에 관한 경험적 현상들의 규명에서 나아가 이들을 관련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구조적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환경 파괴 및 오염의 가시적 현상을 개별적으로 나열해 분석하고자 하는 전통적 환경교육과는 구분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환경정의교육은 기존의 진보적 교육이론들과 결합되면서 점차 체계화되고 관련된 과제들을 설정해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Abstract

Educating Environmental Justice as Ethics of Global Community

Byung-Doo Choi

This paper contributes to promote practical and theoretical interests in environmental justice and to place it to the center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modern capitalism has brought about environmental inequalities, and in particular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process operating on the basis of market mechanism tends to have accelerated them. Thu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logic of market which has generated and deepened environmental inequalities should be replaced with the ethics of environmental justice. The ethics of environmental justice has emerged from practical movements of peoples of diverse classes and ethnic groups who have suffered from environmental inequalities. As the concerns on environmental justice have increased, there have been both various empirical researches on environmental inequalities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to conceptualize environmental justice under several kinds of philosophical and social theoretical traditions(e.g. liberalism, utilitarianism, Marxism, postmodernism, etc.). What is more, such increasing concerns with environmental justice has been reflected on education for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justice education, unlike tradi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gives the main focus to environmental inequalities between classes, ethnic groups and regions and tries to construct ecological communities in which humans and other members of ecology can share their environments and hence co-evolve each other.

Keywords: environmental justice, globalization, logic of market, environmental inequalities, education for environmental justice

참고문헌

- 강영복·송영미. 2003. 『환경정의에 관한 충북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의식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1(3).
- 강영복·유은습. 2004. 『환경정의에 관한 청주지역 노인들의 의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2).
- 강영복·이수옥. 2006. 『청주지역 주부들의 환경정의에 관한 의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4(4).
- 권해수. 2002. 『우리나라의 환경정의운동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2).
- 문순홍. 1997. 『환경정의와 지구 윤리 참관기』. 《환경과 생명》, 14.
- 윤순진. 2002. 『전지구적 환경위기와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환경정의』. 대안사회포럼·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사회의 실종: 공공성의 위기' 발제문.
- 이상현. 1995. 『새로운 환경정의론의 모색』. 한국공간환경학회 편. 『새로운 공간환경론의 모색』. 한울.
- 최병두. 1995. 『환경사회이론과 국제환경문제』. 한울.
- _____. 1999. 『환경갈등과 불평등』. 한울.
- 한면희. 2002. 『세계화 시대의 환경정의』. 《인문과학》, 32.
- 환경부('97세계환경의날추진기획단). 1997.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 선언문』.
- 토다 키요시(戶田清). 1996. 『환경정의를 위하여』. 김원식 옮김. 창작과 비평사.
- Adamson, J., M. M. Evans and R. Stein(eds.). 2002. *The Environmental Justice Reader: Politics, Poetics, and Pedagogy*. Tucson: The Univ. of Arizona Press.
- Almond, B. 1995. "Rights and justice in the environment debate." in D. E. Cooper and J. A. Palmer(eds.). *Just Environments: Intergenerational, international and interspecies issu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pp. 3~21.
- Bommer, A. and G. Schulze. 1999. "Environmental improvement with trade liberalizat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5, pp. 639~661.
- Bowen, W. M., M. J. Salling, K. E. Haynes and E. J. Cyran. 1995. "Toward environmental justice: spatial equity in Ohio and Cleveland."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5(4), pp. 641~663.
- Bowers, C. A. 2001a. "Challenges in educating for ecologically sustainable communities." *Education Philosophy and Theory*, 33(2), pp. 257~265.
- _____. 2001b. *Educating for Eco-Justice and Community*, Athens: The Univ. of Georgia Press.
- _____. 2002. "Toward an eco-justice pedagogy."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8(1),

- pp. 21~34.
- Bryant, B.(ed.). 1995. *Environmental Justice: Issues, Policies and Solutions*. Washington D.C.: Island.
- Bullard, R.(ed.). 1993. *Confronting Environmental Racism: Voices from the Grassroots*. Boston: South End Press.
- _____. 1994. *Unequal Protection: Environmental Justice and Communities of Color*.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 Chase, S. 2002. "Changing the nature of environmental studies, in Adamson." J., Evans, M. M., and Stein, R.(eds.). 2002. *The Environmental Justice Reader: Politics, Poetics, and Pedagogy*. Tucson: The Univ. of Arizona Press, pp. 351~367.
- Chiro, G. D. 1996. "Nature as community: the convergence of environment and social justice." in W. Cronon(ed.), *Uncommon Ground: Toward Reinventing Nature*. New York and London: W. W. Notron Co.
- Cooper, D. E. and J. A. Palmer. 1995. *Just Environments: Intergenerational, International and Interspecies Issu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Dowie, M. 1995. *Losing Ground: American Environmentalism at the close of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Figueroa, R. 2002. "Teaching for transformation: lessons from environmental justice, in Adamson." J., Evans, M. M., and Stein, R.(eds.). 2002. *The Environmental Justice Reader: Politics, Poetics, and Pedagogy*. Tucson: The Univ. of Arizona Press, pp. 311~330.
- Foster, J. B. 2001. "Ecology against capitalism." *Monthly Review*, 53(5).
- Giddens, A. 1991.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Polity, Cambridge.
- Gottlieb, R. 1993. *Forcing The Spr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Environmental Movement*. Washington D.C.: Island Press.
- Grass, R. and J. Agyeman. 2002. "Reorienting environmental education for environmental justice, Resource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National People of Color Environmental Leadership Summit."
- Hampson, F. O. and J. Reppy(eds.). 1996. *Earthly Goods: Environmental Change and Social Justi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p. 52~74.
- Hartley, T. W. 1995. "Environmental justice: an environmental civil rights value acceptable to all world views." *Environmental Ethics*, 17(3), pp. 277~289.
- Harvey, D. 1996.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London: Blackwell.
- Heiman, M. K. 1996. "Race, waste and class: new perspectives on environmental justice." *Antipode*, 28(2), pp. 111~121.
- Hill, R. J. 2003.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adult education at the confluence

- of oppressions.”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99, pp. 27~38.
- Hofrichter, R.(ed.). 1993. *Toxic Struggles: The Theory and Practice of Environmental Justice*. Philadelphia: New Society Publishers.
- Jamieson, D. 1994. “Global environmental justice.” in R. Atfield and H. Belsey(eds.). *Philosophy and the Natural Enviro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Kahn, R. 2003. “Towards ecopedagogy: weaving a broad-based pedagogy of liberation for animals, nature, and the oppressed people of the Earth.” *Animal Liberation Philosophy and Policy Journal*, 1(1).
- Katz, E. 1997. “Imperialism and environmentalism.” in R. S. Gottlieb(ed), *The Ecological Community*. New York & London: Routledge, pp. 163~174.
- Low, N. P. and B. J. Gleeson. 1998. *Justice, Society and Nature: An Exploration of Political Ecology*. New York & London: Routledge.
- Low, N. P. 2000. *Global Ethics and the Environment*, New York & London: Routledge.
- Martinez-Alier. 1997. “The merchandising of biodiversity.” in T. Hayward and J. O’Neil(eds), *Justice, Property and the Environment*, Ashgate, Aldershot; 허남혁 번역 축약. 1999. 『생물다양성의 상품화』. 《농민과 사회》, 겨울호.
- Mathews, F.(ed.). 1996. *Ecology and Democracy*. London: Frank Cass.
- Michael, M. A. 1997. “International Justice and wilderness preservation.” in R. S. Gottlieb(ed.). *The Ecological Community*. New York & London: Routledge, pp. 311~332.
- Muradian, R. and J. Martinez-Alier. 2001. “Globalization and Poverty: An Ecological Perspective.” *World Summit Papers of the Heinrich Boll Foundation*, No. 7 (www.worldsummit2002.org/publications/wsp7.pdf).
- Shiva, V. 1999. “Ecological balance in an era of globalization.” in N. Low(ed.). *Global Ethics and Environment*. New York & London: Routledge, pp. 47~69.
- Szasz, A. 1994. *Ecopopulism: Toxic Waste and the Movement for Environmental Justi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Talbot, C. 1998. “Environmental justice.”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2, San Diego: Academic Press.
- Wenz, P. 1988. *Environmental Justi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최병두 외 옮김. 2007. 『환경정의』. 한울.
- Westra, L. and P. S. Wenz(eds.). 1995. *Faces of Environmental Racism*. Lond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Wheeler, D. 2000. “Racing to the bottom? foreign Investment and air pollution in developing countries.” Development Research Group, World Bank.(http://econ.worldbank.org/files/1340_wps2524.pdf).

- Zehle, S. 2002. "Notes on cross-border environmental justice education." in Adamson, J., Evans, M. M., and Stein, R.(eds.). 2002. *The Environmental Justice Reader: Politics, Poetics, and Pedagogy*. Tucson: The Univ. of Arizona Press, pp. 331~349.